

함평 마산지구 퇴물이 침수피해 언제까지...

<학교면 마산·월산·학교리>

매년 장마철 85ha 물 잠겨
2012년 배수개선 기본 조사
정부 사업 탈락...주민 반발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와 마산리 일대 배수(排水)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함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면 월산리를 비롯해 마산리, 학교리 일대 750ha 유역면적 가운데 85ha(농경지 77ha·기타 8ha)가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 강우시 함평천과 학교천 수위 상승과 배수불량으로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과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마다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



지난해 8월 중순 집중호우때 물에 잠긴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일대 농경지.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지난 2012년에 마산리·월산리·학교리 일대를 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한 후 지난해 해에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완료·확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함평 마산지구를 배제하고 담양 정중지구와 무안 죽산, 장흥 모령, 신안 분배, 해남 월교, 영광 양덕 등 6개 지구를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착공지구로 선정했다.

사업은 7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2개소, 배수갑문 신설 1개소, 배수로 4조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학교면 주민 나모씨는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많게는 4~5일동안 어린 모가 물에 잠겨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함평과 담양이 같은 해에 기본조사를 마쳤는데 한 선거구라는 이유로 담양에 밀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관계자는 “영농철 주민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함평 마산지구가 세부설계 및 착공지구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평군, 관계기관 등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수 개선사업은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의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농업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읍청년회 7년째 재능 봉사활동

무안읍청년회(회장 김대현)가 7년째 관내 9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 봉사 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무안읍청년회는 최근 무안을 상동마을에서 ‘찾아가는 읍·면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마을 정화활동과 함께 무상으로 돌보기를 증명했다. 또 낡은 형광등을 무료로 교체하고 점심식사도 대접했다.

무안읍청년회는 읍·면 봉사활동 외에

도 사랑의 헌혈운동, 거리 정화운동, 한여름밤의 콘서트,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 무안 선·후배가족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대현 회장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물품과 의료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어렵고 낙후된 마을 위주로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신안군 귀농인 정착 현장실습교육

신안군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농가를 ‘멘토’로 지정해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30일 작목별 ‘멘토’ 선도농가 8명과 ‘멘티’ 귀농연수생 8명을 선발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약정을 체결했다.

교육생들은 선도농가로부터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농기자재를 제공받으며, 농기계 사용법과 병해충 방제기술, 작목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영농체험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군은 현장 실습교육을 받는 연수생에게 매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선도농가에는 매월 40만원의 강사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신안지역에는 지난 2010~2014년까지 5년간 512가구 1100여명이 도시에서 귀농했다. 신안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 종합 상담실’을 영농 운영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경찰 남악 신도심 범죄피해자 지원상담실 개소

무안경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지난 2월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데 이어 3월에 무안지역 모범안전



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심야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최근에는 남악 신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악지구대 내에 피해자 지원상담실을 개소했다.

<사진>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안군 기업도시 지급보증 소송 승소

대법원, 두산중공업 지급 청구 기각

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무안군과 두산중공업의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무안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잔여재산 분배청구 등 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청구 상고심에서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를 기각했다.

무안군과 무안기업도시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의 법정다툼은 당초 군이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손실발생시 부담비용을 보증한데서 비롯됐다. 군은 지난 2008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51억원의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보증했다.

두산중공업은 무안 기업도시가 청산된 지난 2012년 무안군을 상대로 전담법인 청산시까지 지출한 비용 27억 2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은 2013년 6월에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투자 손실분 가운데 2009년 9월까지 지출

한 11억6600만원을 무안군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이 2009년 상반기까지 출자금액을 직접투자로 전환키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손실보전금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의 도덕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2014년 7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사안(차액분 16억여원 지급)에 대해 기각하며 무안군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결국 대법원이 두산중공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3년을 끌어오던 무안군과 두산중공업 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일련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무안 기업도시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2012년 6월 특수목적 법인을 청산한 데 이어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7년7개월 여 만에 막을 내렸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전국 슬로시티협의회 정기총회

신안군을 비롯한 전국 슬로시티 1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 30일 전주 전통문화원 수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1개 슬로시티 주민 33명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신안군 제공>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점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지구 아파트

▶ 현진애버빌 1층 / 53평

정남향 / 학군최상 / 로얄동
즉시입주가 가능

◆ 전세 4억 5000만원

치평동 상가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임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약국, 미용실,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00만원

월산동 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광전파크 방2개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개끗 / 주차시설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바(BAR)" 임대

▶ 치평동 2층 중심상업지역

실평수 30평 / 룸1개
현성업종 / 상권최상
권리금 저렴 / 즉시입점 가능

◆ 보3000 / 월190

해쓷음 부동산 674 - 2006